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사례 연구: 초기 내한 선교사 사료 수업과 연계하여*

한미경**

I. 들어가는 말

디지털인문학은 디지털 기법을 인문학 연구에 적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 내는 학제적 방법론으로 연구자들 간에 협업과 소통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디지털인문학은 전 세계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인문학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달성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의 주요 대학교에서는 앞을 다투어 디지털인문학 관련 센터를 설립했고 (Posner, 2013) 이러한 센터들은 대학교 내에서 연구자들에게 디지털인문학적 연구와 교육을 도우며 새로운 방법으로 인문학을 활성화하는 중심이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도 디지털인문학적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여(이광석, 윤자형, 2019) 현재 디지털인문학은 국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과제번호: 2020S1A5C2A02092965)

**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연구원

내의 연구자들에게도 생소하지 않은 영역이 되었다(Lee & Lee, 2019).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는 디지털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디지털인문학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으며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자와 학생에게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이지수, 이해은, 2019). 또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서는 이 분야에 특화된 전문 직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인문학과 관련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없다(국립중앙도서관, 2020). 이러한 국내의 상황은 인문학을 전공 학생들은 물론 인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들도 디지털인문학의 유용한 기법들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는 디지털인문학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¹⁾ 서경숙은 “디지털 인문학의 빠른 성장세 속에서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 분야”(2016)라고 언급했으며, 조준희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출발”한 상태라고 평가했다(2020).

본 논문은 디지털인문학 교육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를 조사하여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의 디지털인문학 관련 수업이 향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2021년 1학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진행했던 디지털인문학적 수업인 <선교사 편지 DB를 통한 재한 선교사 연구>를 소개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지향점으로 디지털인문학센터의 중요성을 제안할 것이다.

1) 디지털인문학 교육에 관한 주요 논문으로는 김현(2005)의 ‘한국학과 정보기술의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박찬길(2005)의 ‘디지털인문학 과목개발전략,’ 서경숙(2015)의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이론 및 실제,’ 김바코(2016)의 ‘한국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박정원 외(2016)의 ‘디지털인문학 큐레이팅 교육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운영,’ 이수진(2016)의 ‘위기를 활용한 대학 인문학 수업의 디지털 글쓰기 교육,’ 김용수(2017)의 ‘디지털인문학과 영미문학교육,’ 박순(2017)의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에 입각한 대학 수업 사례,’ 김현(2018)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현장,’ 조준희(2019)의 ‘21세기 인문학교육을 위하여’ 등이 있다.

II.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사례와 특징

1. 비정규 교육

현재 국내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크게 비정규 교육과 정규 교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정규 교육은 참여자들이 학점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주로 단기 코스로 진행되어 짧게는 1시간 과정에서부터 길게는 몇 주 과정까지 다양하다. 이 장에서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 교육을 세 가지 타입의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첫째는 학기 중에 학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둘째는 학교 구성원에게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이고, 셋째는 방학을 이용한 단기 집중 코스를 대외적으로 개방하여 개설하는 경우다.

첫 번째 예는 대학교내에서 단기적 디지털인문학 관련 강의나 워크숍을 개설하는 경우인데, 학교 내의 디지털인문학센터가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네덜란드의 라이던대학교(University of Leiden)의 디지털인문학센터(Centre for Digital Humanities)가 주관하는 ‘점심시간 강사시리즈’(Lunchtime Speaker Series)는 매달 다른 강사를 초청하여 디지털인문학에 관련된 주제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2시에서부터 1시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부담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²⁾ 또 강의자들을 위하여, ‘교수를 위한 디지털기술 워크숍’(Teach the Teachers Workshop in Digital

2) 비슷한 국내의 예로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의 ‘디지털인문학 특강’이 있다. 2020년 2학기에 시작하여 현재 3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 2학기에는 5명의 인문학 학자들이 각각 다른 디지털인문학 연구의 성과 혹은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한 주씩 제공한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디지털인문학 특강: <http://has.hallym.ac.kr/?c=7/31&uid=1911> (검색: 2021.12.10.)

Skills)이라는 단기 교육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강의자의 범위에는 교수, 강사, 예비 강사인 대학원생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강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법들을 교육한다.³⁾

두 번째로 소개할 비정규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일대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연구 상담 프로그램이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마케트대학교(Marquette University)의 디지털인문학센터인 ‘디지털스칼라십연구소’(Digital Scholarship Lab)는 ‘디지털스칼라십 상담’(Digital Scholarship Consultations)이라는 교육 서비스를 고안하여 학교 구성원에게 디지털인문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일대일 교육을 제공한다.⁴⁾ 많은 해외의 대학교들이 디지털인문학센터를 도서관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도서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케트대학교 경우에도 센터를 도서관에 두고 있다. 센터에는 8명의 소속 직원이 있어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연구자나 학생은 손쉽게 연구 상담을 받을 수 있다.⁵⁾ 직원들은 각자 중점 영역을 맡아 초보부터 고급 단계까지 디지털 스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졸업 논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거나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상세하게 지도해 주는 것인데, 텍스트 분석, 웹 페이지의 구축, 데이터의 시각화 등을 연구 프로젝트이나 수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또 연구소 직원이 수업에 직접 특강으로 나설 수 있는 교수 지원도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3) Universiteit Leiden, Events:

<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events/2021/01/teach-the-teachers-workshop-in-digital-skills> (검색: 2021.10.26)

4) Marquette University, Digital Scholarship and Programs:

<https://www.marquette.edu/library/digital-scholarship/services/consultations.php> (검색: 2021.10.26)

5) 8명의 지위는 Assistant Dean for Digital Scholarship; Digital Scholarship Librarian; Instructional Designer; Web and Digital Scholarship Technologies Librarian; Digital Programs Technician; Coordinator of Digital Scholarship and Programs; Digital Programs Technician; Digital Humanities Specialists이다.

<https://www.marquette.edu/library/digital-scholarship/about.php> (검색: 2021.10.26)

세 번째 비정규 디지털인문학 교육 타입은 교수나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방학 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집중 단기 교육 과정이다. 현재 이러한 교육은 유럽과 북미의 여러 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몇몇 과정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여름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다. 가장 큰 규모의 프로그램은 매년 6월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University of Victoria)에서 개최되는 ‘디지털인문학여름학교’(Digital Humanities Summer Institute)⁶⁾이다. 2001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는 연 평균 800~900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여름 1~2주간 동안에 집중 강의 및 워크숍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대학교의 대학원생들과 인문학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하는데, 참여자들은 약 50여개의 워크숍 중에서 원하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매년 8월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에서 개최하는 여름 디지털인문학 워크숍도 인기 있는 디지털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이다.⁷⁾ 한편 국내에서 방학을 이용한 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 겨울방학 기간 중 2주일 동안 운영하는 디지털인문학 교육 과정인 <인문학을 위한 융합교육>이 있으나 이 교육프로그램에는 본교의 재학생만 참여 할 수 있다.⁸⁾ 또 연세대학교 인문융합교육원에서도 겨울방학 기간에 <비전공자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도구 및 시각화 도구 활용법>을 개설했는데 역시 연세대학교의 학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⁹⁾

6) Digital Humanities Summer Institute(DHSI): www.dhsi.org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실시 (검색: 2021.10.26)

7) 그 외 여름 집중 과정으로는 University of Guelph의 DH Summer Workshops; University of Nebraska의 Humanities Intensive Learning and Teaching(HILT);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Digital Resources & Methods(Dream Lab); University of Leipzig의 European Summer University in DH(ESU)등이 있다.

8)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61> (검색: 2021.10.26)

9) 연세대학교 인문융합교육원: <https://chcenter.yonsei.ac.kr/inmun/index.do> (검색: 2021.10.26.)

2. 정규 교육

정규 교육이란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위를 받기 위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을 말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던 수업 중에서 6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정 기준은 디지털인문학 수업의 기존 교수법과 새로운 교수법을 대표할 만한 사례들이지만, 필자의 수업과의 관련성도 염두에 두었다. 예를 들어, 신학대학원에서 개설되었던 수업 또는 정부나 재단으로부터 학술 연구 기금의 지원을 받아 특정한 자료의 DB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개설된 수업의 경우를 본 연구의 사례로 삼았다.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총 6개의 수업은 크게 다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타입은 디지털인문학 전반에 대해 가르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수업이다. 이러한 수업은 이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습수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로 대학교에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인문학을 소개하고 향후 이 기법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수업이다. 두 번째 타입은 인문학의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수업에 디지털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고전을 다루는 문학이나 역사학의 다양한 주제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디지털 세계의 기법을 통해 내용들이 쉽게 이해되고 내용의 상관관계 및 관련어 검색이 용이해지게 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인 UCLA의 <디지털인문학 개론>(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이다. 이 수업은 다양한 전공하는 학부 3학년과 4학년 학생이 수강할 수 있으며(upper division course) 디지털인문학을 부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수과목이다.¹⁰⁾ 디지털인문학의

10) UCLA 학부 과정에는 디지털인문학 전공은 없고 부전공만 있다. 대학원에는 수료(certificates) 과정이 있다. 한편, 국내 디지털인문학 학위 과정으로는 한국중앙연구원의 인문정보학(석사, 박사), 아주대학교의 디지털휴머니티(석사), 한림대학교의 디지털인문예술(학사), 상명대학교 디지털인문정보융합(학사) 등이 있다.

주요 방법론과 이론을 매주 교재 읽기와 그룹 토론을 통해 익히고, 또한 인문학 연구에서 디지털인문학 방법이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배운다. 매년 강사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018년에 진행된 수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8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1)데이터를 구조화한다, (2)전자 지도를 만든다, (3)데이터를 시각화한다, (4)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든다, (5)웹 사이트를 콘텐츠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축한다, (6)수준 높은 인문학 연구를 수행한다, (7)사용한 디지털 방법과 도구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표현을 한다, (8)인문학 연구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상상해 본다. 이 수업의 웹 페이지에는 강의계획서 및 수업에 관련된 정보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¹¹⁾ 또 수업에 참여한 15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18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수행한 학기말 팀 프로젝트는 각 팀이 각자의 사이트를 만들어 공개하였고, 전체 수업의 웹 페이지와 연동시켰다.

이 수업의 강점은 학기말 프로젝트에 있다. 이 수업의 학기말 프로젝트는 다른 많은 디지털인문학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협업을 강조하는데, 수업 전체가 그룹을 만들어 수행하면서 학기말 프로젝트에 수업에서 배운 모든 내용을 집결하는 데에 있다. 학기말 프로젝트를 위해서 교수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28개의 데이터 세트(data set)를 학기 초에 제공한다.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시의 모든 사업장 리스트, 시인 휘트먼(Walt Whitman)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모든 파일, 뉴욕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이 19세기부터 수집하고 있는 뉴욕 레스토랑의 메뉴판 등에서 추출된 데이터 세트이다. 18개의 팀은 이러한 여러 데이터세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뒤에 주제를 좁혀 나가면서 연구 질문과 가설을 만들어야 했다. 그 후 다양한 디지털 툴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웹 사이트로 만들도록 했다. UCLA의 학기가 쿼터제인 10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1학기 동안 학생들이 감당하는 과제의 분량은 적어 보이지 않았다. 팀들이 선택한

11) DH101: <https://asandersgarcia.humspace.ucla.edu/courses/dh101f18/syllabus/>(검색: 2021.10.26)

주제 중에는 미국 19세기의 감옥, 음악과 페미니즘, 19세기 대서양의 난파선,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음식이 있었다. 특히, 마지막 ‘K-Town Cuisines’는 코리아타운 음식점의 유행과 발전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연구 질문을 만들었다. 또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데이터세트 중에서 코리아타운 내의 비즈니스 통계와 음식점 통계를 활용했고 전자 지도, 그래프, 음식점 주인들의 인터뷰 등을 위해 Wix 등 여러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였고, 웹 사이트에는 디지털인문학의 기법으로 데이터에 접근하여 도출한 결론도 포함시켰다.¹²⁾

이 수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학생들은 꼭 필요한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배운 후, 몇 가지 디지털 기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에 적용해 보는 학습을 수행하여 향후 디지털 기법을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또 결과물을 웹 사이트에 탑재하여,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도록 한 것도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디지털 인문학적 기법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및 분석에 활용하도록 교육한 것이다. 이러한 수준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개론 수업이지만 짜임새 있는 준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로는 라이던대학교에서 2018년 가을학기에 개설한 <디지털 인문학과 텍스트마이닝 개론>(Hacking the Humanities: an 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 and Text Mining)¹³⁾을 선정하였다. 이 교과목은 앞서 다룬 UCLA 교과목처럼 디지털인문학을 ‘부전공’하는 학생들이 3학년 시기에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이 수업도 역시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이론과 주요 방법론을 수업 교재 읽기와 강의를 통해 다루는데, 참여 학생들이 컴퓨터 언어나 디지털 기술에 능통할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12) K Town Bites: <https://bruinbusinessburea.wixsite.com/ktownbytes> (검색: 2021.10.26)

13) Universiteit Leiden, Studiesgids:

[https://studiegids.universiteitleiden.nl/courses/101992/hacking-the-](https://studiegids.universiteitleiden.nl/courses/101992/hacking-the-humanities-an-introduction-to-digital-humanities-and-text-mining)

[humanities-an-introduction-to-digital-humanities-and-text-mining](https://studiegids.universiteitleiden.nl/courses/101992/hacking-the-humanities-an-introduction-to-digital-humanities-and-text-mining) (검색: 2021.10.26)

이 수업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대량의 디지털 데이터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마이닝 툴인 파이썬(Python)을 실습하도록 주력했다. 파이썬은 단어 빈도 등 통계적인 요소를 생성하게 하여 전통적인 꼼꼼히읽기(close-reading)를 통해서도 도저히 할 수 없던 분석을 전산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 교수는 학생들이 파이썬을 통한 디지털 기법을 배우고 친숙해져 학생들이 이전에 얻을 수 없었던 인문학 관련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담당 교수는 파이썬 실습을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 제공했는데, 아나콘다(Anaconda)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서부터 웹 스크래핑(web scraping)을 하는 방법까지 총 21개의 동영상¹⁴⁾을 제작했다. 담당 교수는 이와 같이 많은 동영상을 학생들을 위해 만든 동기를 언급했다. 수업 중에 ‘기술적인 학습’을 위해 쓰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코딩을 사용하여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 토의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역진행 수업’(Flipped Learning)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살펴볼 사례는 미국 뉴저지 주의 프린스턴신학대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이 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개설한 <디지털인문학 개론>(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 수업이다.¹⁵⁾ 이 수업은 미국 내의 신학대학원(Theological Seminary 혹은 Divinity school)에서 지금까지 개설한 유일한 디지털인문학 수업인 것으로 추정된다(Murray, 2021). 참고로 보스턴대학교의 신학교(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의 도서관에 설립된 디지털인문학센터인 ‘디지털신학연구소’(Digital Theology Lab)가 신학과 관련된 디지털인문학 워크숍과 개인 레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규 디지털인문학 과목은 개설된 적이 없다.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수업은

14) Hacking the Humanities Tutorials: <https://youtu.be/fhsH4ua9zP8> (검색: 2021.10.26)

15)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cademic Info.:

<https://www.ptsem.edu/academics/departments/religion-and-society/academic-info> (검색: 2021.10.26)

위의 디지털인문학 학부 수업처럼 신학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디지털인문학의 기본적인 이론, 개념, 방법 등을 소개한다. 구약학 교수와 도서관 소속 디지털 전문 직원 2명이 공동으로 맡아 가르쳤다. 수업에서 대부분 시간은 디지털인문학과 관련한 교재 읽기와 토론에 할애했고, 실습수업에서 XML(eXtensive Markup Language)라는 컴퓨터가 텍스트를 읽게 하는 마크업 언어와 마크업에 사용되는 TEI(Text Encoding Initiative)라는 표준 지침을 통해 디지털 텍스트 구현 방법을 소개했다(Murray, 2021). 실습의 대상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1차 자료를 선정하여 XML-TEI 방법으로 학술용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법에 적용해 본 것이다. 학기말 과제는 디지털인문학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20명의 학생 중에서 3명만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온라인 전시에 참여하기를 위하여 현재 도서관과 연결된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⁶⁾

이 수업의 의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대학원이 디지털인문학을 신학 수업 및 연구에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아날로그 신학 자료들을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배우며 XML-TEI 기법을 습득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 20명 중에서 단지 3명만이 마지막 프로젝트의 온라인 전시에 참여한 것은 학생들이 각자의 개인적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디지털인문학이 본질상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이 각각 작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협업을 통해 공동 작업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 자신도 노력의 결과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김현, 2018). 또 디지털인문학 수업이 기대한 효과를 얻으려면 ‘구체적인’ 텍스트나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네 번째 사례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가 2020년 2학기에 3학년, 4학년 학생을 위해 개설한 <고전탐구세미나 1> 수업이다.¹⁷⁾ 담당 교수는 고전인 논

16) Princeton Seminary Student DH Projects: <http://exhibits.ptsem.edu/dhprojects2015/>(검색: 2021.10.26)

어를 강의했는데 기존에 고전과 관련하여 진행된 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디지털인문학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동양의 고전을 대표하는 논어를 현대적인 틀에 접목하여 고전 공부에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한 것이다. 학생들은 디지털 기법이 고전 논어의 연구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다른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고전 텍스트의 연구에도 같은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사 정보(2021)에 의하면 이 수업은 “고전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이라고 했으며, 수업은 기대했던 목표를 잘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의 구성은 크게 이론 강의(5주), 시연과 실습(3주), 발표와 토론(4주)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한 학기 동안 각자의 팀에 속하여 협업하도록 했다. 팀 과제는 해외 디지털인문학의 사례, 논어 읽기 기획, 논어 데이터 큐레이션 등이었다. 마지막 과제는 논어와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연구 질문을 만들고 Neo4J라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수업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팀 프로젝트 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사례(UCLA, 라이던대학교, 프린스턴신학대학원)와 비교해 볼 때 서울대학교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UCLA 수업의 강점과 같이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을 잘 조화되어 있다. 그런데 실습에서 전자는 다양한 주제의 데이터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했지만, 후자는 논어라는 한 주제 텍스트에 집중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비교해 살펴보면, 디지털인문학 수업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를 탄력성 있게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전자는 디지털인문학 기법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후자는 특정한 텍스트에 집중해서 사용되었을 때의 강점으로 보여준다.

17) Data Design For Classics: <http://dh.aks.ac.kr/~red/wiki/index.php/DataDesignForClassics>(검색: 2021.10.26)

(2) 논어를 수업하면서 활용한 주요 디지털 툴은 미디어위키(MediaWiki)이었다. 이는 자료의 시각화 및 이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배우고 수행하는 데이터의 관계망 설계, 즉 온톨로지 설계와 그 때문에 가능한 여러 연구 분석을 끌어내고 결과물을 공유하는데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이다(김지선, 장문석, 류인태, 2021). 앞서 살펴본 라이던대학교의 수업이 여러 디지털 기구 중에 ‘파이썬’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해석한 것과 같이 논어 수업에서는 ‘미디어위키’를 적합한 도구로 선정하여 고전 ‘논어’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연구했다.¹⁸⁾ (3) 이런 데이터 관계망 설계를 통한 연구는 전통적인 논어 읽기를 통해서서는 도출할 수 없는 ‘관계의 현상’을 읽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담당 교수는 ‘논어 읽기’에 적용한 데이터의 설계와 구축 및 해석의 과정은 “고전을 향한 비판적 접근이자 고전을 다루는 협업적 활동이자 고전에 대한 창의적 제안으로 여길 수”있다고 하였다(류인태, 2021). 실제로 학기말 팀 프로젝트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논어에 ‘군자’라는 단어가 언급된 모든 구절이라든지, 한국 정치인들이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누가, 어떤 논어 구절을 인용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 결과물을 생성했다.¹⁹⁾ 이는 고전의 탐구와 활용이 더 이상 일부 전문 연구자들만이 할 수 있는 닫힌 영역이 아님을 인식하게 했다. (4) 서울대학교의 수업도 학기말 프로젝트를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했고 수업 중에 생산한 다른 과제들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인문학 수업이 지향하는 협업과 결과의 공유를 잘 실천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엔디콧대학교(Endicott College)의 역사학 수업인 <세일럼 마녀재판>(The Salem Witch Trials)이다. 이는 엔디콧대학교에서 계속 개설해 온 지역사 과목인데 대학교가 위치한 지역과 깊

18) 이 수업 외에도 미디어위키를 활용하는 국내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고 진행되고 있다. ‘인문정보학Wiki:인문정보학교실’ 참조 (<http://dh.aks.ac.kr/Edu/wiki/>) (검색: 2021.12.10.)

19) http://dh.aks.ac.kr/~red/wiki/index.php/논어_구절로_알아보는_정치인의_결과 속 (검색: 2021.10.26)

은 관련이 있다. 엔디콧대학교가 위치한 지역은 1692년에 ‘세일럼 마녀재판’이 열렸던 곳이고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그동안 그 지역을 대표하던 대학교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역사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 엔디콧대학교 요람에 게재 된 수업 개요에 의하면, 이 수업은 세일럼 마녀재판의 역사를 탐구 하며 재판 기록을 읽으면서 ‘마녀재판’의 기원, 발전 및 유산, 청교도주의, 마법, 법적 관행 및 식민지 시대의 여성 위치와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마녀 사상 사례 등을 연구하는 수업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담당 교수는 이 수업에 디지털인문학 방법을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엔디콧대학교가 한 교육재단으로부터 교양과목에 디지털 교육 방법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았는데, <세일럼 마녀재판>이 이 지원금의 대상 과목으로 선정된 것이다.²⁰⁾ 담당교수는 학생들에게 마녀재판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재판이었던 1692년 재판, 곧 ‘오이야 앤 터미나’(Oyer and Terminer)법원 문서²¹⁾에 언급된 여러 ‘마녀’ 중에 한 인물을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CSV 파일로 만들어 정리하게 했다. 그리고 팔라디오(Palladio)라는 오픈 소스 디지털 툴을 활용해 ‘마녀’들과 재판 문서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사회연결망’의 분석을 과제로 요구했다. 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역사학 교과서와 마녀재판에 관한 1차 자료를 직접 읽고 논문을 쓰게 하는 과제를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당시의 사회연결망을 디지털 기법인 팔라디오를 사용하여 도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Matelski, 2020). 요약하면, 디지털인문학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이 수업의 특징은 기존의 역사 과목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역사 자료를 연구하는 분야에 디지털 기법을 사용하면 해석에 있어 유의미한 시각의 확장을 유발할 수 있다.

20) Endicott College, News and Events: <https://www.endicott.edu/news-events/news/news-articles/2018/11/pushing-the-curriculum-envelope> (검색: 2021.10.26)

21) Univ. of Virginia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했다. (<http://saalem.lib.virginia.edu/home.html>) (검색: 2021.10.26)

여섯 번째 사례는 미국 뉴욕 주의 로체스터대학교(University of Rochester)의 학부 및 대학원 역사학 수업인 <The Seward Family's Civil War>과 <The Seward Family in Peace and War>이다. 이 수업의 특징은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큰 규모의 특정 디지털인문학 프로젝트와 대학교의 정규 교과목 수업을 연계한 것이다. 교과목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발전된 형태의 연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The Seward Family's Civil War>과 <The Seward Family in Peace and War>은 현재 로체스터대학교 디지털인문학센터인 ‘디지털스칼라십연구소’(Digital Scholarship Lab)와 도서관이 함께 수행중인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인 ‘슈워드 가문 디지털아카이브’(Seward Family Digital Archive)와 연계되어 있는데, 이 대학 도서관에서는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역임하며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중요한 정치적 인물인 윌리엄 슈워드(William H. Seward, 1801-1871)와 그의 가족이 남긴 방대한 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 문서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재단과 기관으로부터 11억원(\$1 million)이 넘는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정규 교과목과도 연계한 것이다.

수업의 강의자는 초창기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수로, 그는 슈워드와 그의 가족의 편지에서 도출한 테마를 선정하여 수업을 디자인했다. 학기 초반의 수업은 디지털 도구 활용에 초점을 두지 않고 읽기를 강조하는 기존의 역사학 수업과 흡사하게 디자인되어 학생들은 미국 19세기 시대의 가족, 우정, 젠더, 사춘기 등과 관련된 2차 자료를 읽으면서 당시의 생활사를 연구했고, 이에 학기 중반 후에는 8~10통의 슈워드 가족의 편지를 읽는 과제를 추가했다. 하지만 학기 후반부에는 분배 받은 편지를 데이터화 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편지를 전사(transcribe)하고 그 내용에 주석달기(annotate) 하는 법을 배웠다. 이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XML-TEI 방법을 따라 텍스트를 변환하는 작업과 인코딩하는 디지털 스킬을 배웠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은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포함되었다(Burd, 2020).

III.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수업

2021년 1학기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개설한 <선교사 편지 DB를 통한 재한선교사 연구(TGD6052)> 과목은 위의 여섯 가지 사례의 특징과 장점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수업이었는데, 특히 여섯 번째 사례와는 배경적인 유사점이 있다. 연세대학교 수업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내한선교사 편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내한 선교사 편지는 신학대학원생들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사료인데, 다수의 내한 선교사 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1차 자료이다. ‘내한선교사 편지 디지털 아카이브’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에 소속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20년 9월부터 3년 동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내한 선교사 편지를 인문학의 기법으로 편찬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이 자료에 접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신학대학원의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1차 자료를 직접 연구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인 디지털인문학을 익히게 되어 향후 각자의 연구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수업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사 강좌로 ‘내한선교사 편지 디지털 아카이브’사업의 공동연구원 2명이 담당했다.²²⁾ 수강생은 박사 과정의 학생 3명, 석사 과정의 학생 3명 그리고 청강생 1명으로 총 7명이었다.²³⁾

22) ‘내한선교사 편지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의 기획자이며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편린>의 저자인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의 허경진교수와 필자의 팀티칭 과목이었다.

23) 박사 과정 학생 중 2명은 신학대학원 소속으로 각각 교회사와 선교학 전공이었고, 1명은 문과대학원 영어영문학 전공자였다. 석사 과정 학생 중 2명은 신학대학원 소속으로 교회사와 종교철학을 전공하고 있고, 1명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 위치한 대학원 Global Institute

이들의 학부 과정 전공은 문학 (2명), 경제학 (2명), 지역학 (1명), 철학 (1명) 혹은 미술 (1명)이었다. 이러한 인적 구성에서 보듯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컴퓨터 관련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 지침에 따라 서울시의 모든 대학에서 2021년 1학기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수업도 줌(Zoom) 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학기의 모든 강의수업과 실습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 수업의 목표와 구성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1) 해방 이전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내한 선교사들과 그들이 작성한 현존하는 편지의 규모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편지들의 자료적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 본다. (2) 내한 선교사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기관과 컬렉션에 대해 소개하여 초기 한국 교회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적인 접근의 지평을 넓힌다. (3) 특정한 선교사 편지 컬렉션을 선택하여 그 중에서 일부 편지의 내용을 강독하고 편지와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조명 한다. (4) 위의 결과를 기반으로 선교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실습을 수행한다. 특히 XML-TEI와 위키 편찬 방법 등을 습득하며, 최종 결과물을 모아 온라인 출판 을 한다.

수업을 디자인 할 때에 학업의 진도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4번째 주에 웹 사이트, 및 타임라인, 매핑 등 디지털 툴 학습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론 부분은 줄어들고, 실습 부분이 강화되었는데,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강의 배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of Theology 소속 외국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청강생은 국문학을 전공한 박사 학위 소지자였다.

<표 1> 강의 내용

1	한국 기독교(천주교 & 개신교) 역사 개론 강의	2주
2	선교사 편지 사료의 소개와 소장 기관 소개 & 편지 전자 편집: XML/TEI 문서 강의, 실습; TAPAS에 출판	5주
3	편지 전자 편집: Wiki 플랫폼에서 전자 문서 강의, 실습	3주
4	편지 맥락 이해: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 웹사이트(WordPress) 구축, 타임라인, 매핑 제작	5주

처음 2주 동안에 시행하는 한국교회사의 전반에 대한 개괄 강의 중심 수업을 제외하면, 수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항기에 서울과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미국 남장로교²⁴⁾ 교단 소속 선교사들이 작성한 편지의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과정인 ‘전자 편집’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편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전라도 지역 선교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웹 사이트의 구축이다.

2. 전자 편집(XML-TEI와 Wiki) 실습

본 수업이 수행한 첫 번째 실습은 선교사 편지들을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편집하고 온라인에 출판하는 과정이었다.²⁵⁾ 전자 편집을 통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작성된 편지를 디지털 데이터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과 과정을 실습하고, 디지털 자료로 변환된 편지들을 디지털로 출판함으로써 전자 편집의 효과를 경험하게 하였다. 전자 문서 편집 방법으로 두 가지 기법을 연습하였는데, 학기 초에 XML 방법을 실습했고 학기 말에는 Wiki 방법을 활용했다.²⁶⁾

24) 미국 남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1861-1983)는 미국의 개신교 교단 중 하나로 남북전쟁 시기에 노예 문제 등의 이유로 미국장로교단(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89-1958)에서 분파되었다. 소속 교회들이 미국 남부 지역에 위치하였기에 남장(Southern Presbyterian)이라고 불렸다. 미국 남장로교는 1892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다(송현강,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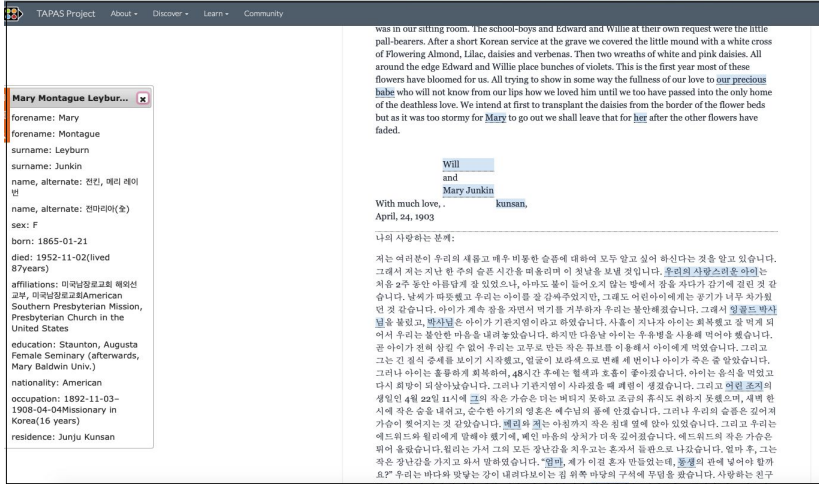
25) <표 1>에서는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수업이다.

전자 편집을 위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광주와 목포에서 활동한 선교사 벨(Eugene Bell, 배우지, 1868-1925)과 근산에서 활동한 전킨(William Junkin, 전위렴, 1865-1908)이 작성한 편지를 선정했다. 벨의 편지는 한남대학교 인문학술원에 소장되어 있는 복사본을 활용했는데, 이 자료는 해방 후 내한한 미국 선교사 서머빌(John N. Somerville, 서의필, 1928- & Virginia B. Somerville, 서진주, 1927-2006)부부가 필기체로 작성된 원문 편지를 전사한 것이다. 전킨의 경우는 “더미서너리”(The Missionary)라는 미국 남장로교 교단 잡지의 칼럼(‘Letters from Missionaries’)에 기고한 것과 동료 선교사였던 알렉산더(A.J.A. Alexander, 안력산, 1875-1929)에게 보낸 개인적 편지이다. 후자의 경우는 출간된 편지가 아니라 현재 미국 켄터키역사학회(Kentucky Historical Society)에 종이 형태로 소장되어 있는 1차 자료이다(한미경, 장윤금, 2018). 편지 원본의 이미지를 수집하여 사용했으며, 필기체로 작성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자 문서 변환하기 위해서 먼저 전사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작업은 필자가 학기 전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수업에서 텍스트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영어 필기체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의 연구자들에게 전사 작업은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본 수업은 편지를 전사나 번역하는 작업보다는 XML 또는 위키 문서로 전자 편집하는 작업을 배우는 것에 집중했다.

XML은 마크업 언어로 컴퓨터가 텍스트 데이터를 표현, 보존,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 형식이며, 디지털인문학에서의 기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XML을 사용하기 위해 학생들은 각자의 컴퓨터에 옥시젠(Oxygen)이라는 XML편집기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 이는 초보자에게는 다소 복잡할 수 있는 XML을 간단하게 배울 수 있게 하는 틀이다.²⁷⁾ 또 편지를 XML문서로 만들되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프린스턴신학대학원이나 로체스터대학교 수업에

26) 필자는 전자에 집중하였고 후자는 한국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장동룡선생이 특강했다

27) Oxygen XML Editor(<https://www.oxygenxml.com>)는 1달 무료 체험기간을 제공한다. 본 수업을 위해 사용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학생들은 2021년 3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무료로 사용했다.



<그림 2> TAPAS에 학생이 올린 1903년 전킨선교사의 편지

에서 수행했다.²⁸⁾ TAPAS는 TEI, Archiving, Publishing, and Access Service의 약자로 미국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에서 후원을 받아 노스이스턴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의 디지털인문학센터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누구든지 XML-TEI 파일을 손쉽게 출판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랫폼이다(Flanders et al., 2020). TAPAS는 XML 파일을 웹 사이트에 올리기 위해 HTML로 변환하는 언어인 XSLT를 사용해이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편리하게 출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앞서 언급한 여름 집중 디지털인문학 교육을 제공하는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 워크숍 등에서도 TAPAS Project에 결과물을 올린다.

학생들은 각각 TAPAS Project에 직접 등록하고 로그인하여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듯이 자신들이 만든 선교사 XML-TEI 편지 파일을 'TGD6052'라는 수업 번호를 따서 만든 컬렉션에 직접 탑재했다. 결국 TAPAS의 전자출판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해외 디지털인문학 세계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28) TAPAS Project www.tapasproject.org (검색일: 2021.10.28.)



<그림 3> TAPAS에 학생들이 올린 수업 선교사 편지 컬렉션

언었고 수업의 결과물을 외부와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프로젝트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참고로 본 수업에는 실습수업이 많아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비하여 중요한 실습 내용에 관련 시범 동영상을 화면 녹화 방식의 강의 녹화도구인 에버렛(EverLec)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제작했고, 이 동영상 파일은 연세대학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러어스(LearnUs)에 있는 본 수업 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앞서 설명한 라이던대학교의 수업에서 강사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처럼 예습 또는 역진행 수업 방법을 겨냥하여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녹화 영상은 몇몇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된 부분이 확실히 있었다. 또 학기 중의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학생들과 현장에서 만나 개인 지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강사와 학생은 줌을 활용하여 학기 후반기에는 일대일 인터뷰를 한번 이상 필수로 하여 학습 진도에 있어 뒤처짐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3.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 웹 사이트의 구축 및 시각화 틀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수업은 수강생들에게 디지털인문학의 기법으로 선교사 편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필요한 기법을 실습하는 것이다. 본 수업에서 두 번째로 실습한 영역은 워드프레스(WordPress)를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안에 전자지도와 타임라인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학기 중 다루었던 선교사 편지의 맥락인 초기 미국 남장로교의 한국 호남 선교를 이해하는 연구를 병행했다.

1) 웹 사이트

이번 수업에서 다루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기본 배경 정보와 그들이 생산한 자료 정보를 포함하는 웹 사이트는 워드프레스라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구축했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한 것은 컴퓨터 언어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



<그림 4> 남장로교 한국선교(1892-1942) 홈페이지

되는 콘텐츠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업 이후 학생들이 각자 자신들의 학술적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림 4>는 워드프레스를 활용하여 만든 ‘남장로교 한국선교’ (www.kmhistory.com) 의 홈페이지이다.

우선, 학생들은 모두 워드프레스에서 편집자 권한을 부여 받고 각각 1892년에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로서는 처음 한국에 도착한 ‘7명의 개척자’(Seven Pioneers)라고 불리는 선교사들²⁹⁾ 중의 한 사람에 대한 연구 과제를 각 페이지를 만들어 작성했다. 남장로교의 선교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실 페이지, 전자지도, 타임라인 등도 동료 학생들과 협업하여 만든 결과물로 전시했다. 이 웹 사이트는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또한 이 과목이 다시 개설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자 타임라인

타임라인 또는 시각표는 연대기적 성격을 가진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수업 타임라인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의 언론대학 (Medill School of Journalism)과 공학대학(McCormick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이 공동으로 만든 연구소인 나이트랩(Knightlab)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디지털 도구인 타임라인JS(TimelineJS)를 활용했다. 타임라인JS는 구글(Google)에서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인 구글시트(Google Sheets) 파일 1개를 사용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각 맡은 선교사들과 관련된 여러 주요 이벤트에 대한 주요 정보의 연도, 제목, 텍스트, 이미지 링크 등을 작성하고 저장했다. 구글시트는 온라인에서 여러

29) 7명은 데이비스(Linnie Davis Harrison, 1862-1903), 전킨 부부(Mary Junkin, 1865-1952; William Junkin, 1865-1908), 레이놀즈 부부(Patsy Reynolds, 1868-1962; William Reynolds, 1867-1951), 테이트 남매 (Lewis Tate, 1862-1925; Mattie S. Tate, 1864-1940)이다(방영상, 송정연,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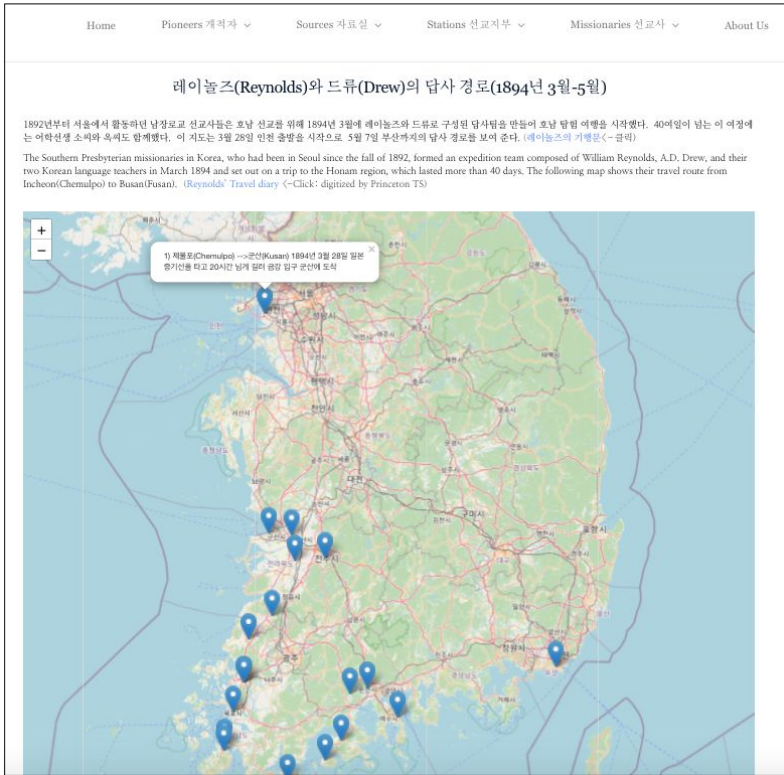
인 한 것이다. 학기 말에 타임라인JS에서 생성해주는 iFrame 코드를 워드프레스에 해당 페이지에 삽입하면 타임라인이 생성된다. <그림 5>은 학생들이 각자 담당한 선교사들의 주요 정보를 구글시트에 함께 정리해서 입력한 모습이다. 또 <그림 6>은 ‘남장로교_한국선교’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서의 결과물이다.

3) 전자지도

전자 지도를 통한 시각화를 위해서는 스토리타임JS(StorytimeJS)과 리플릿 맵(Leaflet Map) 두 개의 툴을 활용했다. 첫째, 스토리타임JS는 위에 설명한 타임라인JS를 개발한 연구소에서 만든 것이어서 타임라인JS와 비슷하게 작동한다. 본 홈페이지에 추가한 스토리타임JS에는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이 1899년부터 1913년까지 군산, 전주, 광주, 목포, 순천에 건립한 5개의 선교지부(mission stations)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스토리타임JS도 구글시트를 활용했다.

둘째, 리플릿 경우 워드프레스의 기능을 확장해주는 프로그램인 플러그인(Plugin)을 워드프레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운 기술적인 요소를 따로 배우지 않고 간단한 코드와 위도 및 경도에 관한 정보만으로 전자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그림 7>의 지도는 군산진료소의 의사선교사였던 드루(Alessander D. Drew, 유대모, 1859-1926)와 성경번역과 교회사역 선교사였던 레이놀즈(William Reynolds, 이눌서, 1867-1951)가 두 한국인 어학선생들과 함께 1894년에 6주간 호남 지역을 답사한 경로를 레이놀즈의 여행 기록에 근거하여 시각화한 것이다(<그림 7> 참조).³⁰⁾ 이러한 매핑 및

30) 레이놀즈의 전라도 여행일기 “Diary of Chulla-Do Trip, March 27-May 13, 1894”는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원 도서관이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본은 이해정역, 호남탐사기. 호남교회춘추 2008년 11(30호) p. 59-68를 참조. 답사 후 본격적인 호남 지역 선교를 시작하려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1894년부터 시작된 동학농민운동이 전라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1년 이상 서울에서 대기하면서 미국 북장로교 서울선교지부의 교육, 의료, 전도 사역을 도왔다(송현강, 2018)



<그림 7> 레이놀즈와 드류의 1894년 전라도 답사 경로 맵핑

타임라인 같은 시각화는 학생들에게 편지에 나타나는 인물, 장소, 주제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전체 맥락의 파악도 가능하게 한다.

이상으로 <선교사 편지 DB를 통한 재한 선교사 연구> 수업에 대해 살펴 보았고, 특히 수업에서 구현된 디지털인문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IV. 요약 및 제언

본 논문은 국내외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규 수

업과 비정규 수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후자에 관련하여 여섯 가지 수업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그 특징들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학기 <선교사 편지 DB를 통한 재한 선교사 연구> 수업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도록 고안되었는지를 설명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내한 선교사 편지라는 1차 자료를 한국 교회사의 맥락에서 면밀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디지털인문학의 기법을 교회사 연구에 접목하는 실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2) 인문학을 연구해 온 다수의 대학원생들은 디지털 기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업을 고안했다. 특히, 기술적인 영역은 따로 제작한 영상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반복학습을 통해 수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수업을 마칠 무렵에 학생들은 몇 가지 디지털 툴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학기말 과제는 출판을 전제로 고안되었으며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마무리한 과제물은 워드프레스로 만든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유되었다. 그리고 편지의 전자 편찬은 Oxygen 편집기를 사용하여 XML-TEI 파일을 만들어 미국 디지털인문학 사이트인 TAPAS Project에 출판했다. 웹 사이트의 구축의 경우 참여 학생들이 특정한 선교사에 대하여 연구한 뒤에 결과물을 워드프레스에 직접 입력했고 매핑과 타임라인을 동료들과 협업하여 완성했다.

연구의 결과, 향후 대학의 디지털인문학 교육을 위해 디지털인문학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센터의 유용성은 해외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여러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디지털인문학 교육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탄력성 있는 교육은 디지털인문학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센터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인문학을 주도한다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인문학 교육은 본질상 여러 분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시행되므로 디지털인문학센터가 각 분야를 서로 연결하는 소통의 허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이 전문적인 센터를 운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서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문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을 지원하여 인문학 수업에 디지털인문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본 논문이 제시한 여섯 가지 사례 중에서, 엔디콧대학교의 사례가 보여 주듯 기존의 인문학 수업에 디지털 인문학의 기법을 적용하려 할 때, 디지털인문학센터의 지원을 받는다면 강의자들은 손쉽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인문학의 기법을 기존 교과목의 수업에 잘 활용한다면, 디지털에 익숙한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는 더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디지털 기법을 역사학, 문학, 철학 등의 영역을 넘어 사회현상을 담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 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여섯 가지 사례 중에서 UCL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센터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관심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이 다양한 학생들이 관심들을 폭넓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디지털인문학센터는 대학원생들과 전문 연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마케트대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센터에 전문 연구 직원들은 학위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추가해서, 디지털인문학센터가 대학 내에 마련된다면,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용이해 질 것이다. 디지털인문학센터는 이러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첨언하면, 각 대학의 디지털인문학센터가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디지털인문학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디지털인문학 교육, 내한 선교사, 한국교회사 사료, 편지, 미국 남장로교

[참고문헌]

- 국립중앙도서관(2020).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스칼라십 정보서비스 개발 연구 (11-1371029-000211-01).
- 김바로 (2016). 한국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현, 임영상, 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서울: HUEBOOKs, 384-404.
- 김지선, 장문석, 류인태 (2021).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한국학연구, 60, 371-419.
- 김용수 (2017). 디지털인문학과 영미문학교육: 4학기 동안의 실험. 영미문학교육, 21(2) 31-59.
- 김현 (2005). 한국학과 정보기술의 학제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연구, (43) 243-190.
- 김현 (2018).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현장: 인문콘텐츠, (50), 9-34.
- 류인태 (2021). 데이터 기반의 고전 읽기 교육: “논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8(1), 43-73.
- 박순 (2017).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에 입각한 대학수업 사례: 위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한자수업을 중심으로. 어문학, 0.138: 269-297.
- 박정원, 조정은, 이남희, 김경남, 김후련, 이상임 (2016). 디지털인문학 큐레이팅 교육프로그램 모듈개발 및 운영(2014S1A6A7071045).
- 박찬길 (2005). 웹을 이용한 문화연구: HCRG의 디지털인문학 과목개발전략. 영미문학교육 9(1), 157-184.
- 방연상, 송정연 (2017). 기독교가 군산 지역에 미친 사회적 영향: 남장로교 선교사 편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11. 63-85.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사정보 (2016). 출처: https://cls.snu.ac.kr/classic_seminar
- 서경숙 (2015).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이론 및 실제: 영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38, 19-39.
- 서경숙 (2016). 웹2.0시대, 디지털 DIY 제작을 통한 영미시교수법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42(2), 141-159.
- 송현강 (2018). 미국남장로교의 한국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연세대학교 인문융합교육원 (2021). 출처: <https://chcenter.yonsei.ac.kr/inmun/index.do>
- 이광석, 윤자형 (2019). 국내 ‘디지털인문학’의 정착과 굴곡: 대학 교육과 미디어 테크놀로지 불안정한 접속. 한국언론정보학보, 95, 9-34.
- 이수진 (2016). 위키(Wiki)를 활용한 대학 인문학수업의 디지털 글쓰기 교육. 문화와 융합,

38(4), 353-377.

이지수, 이해은 (2019). 미국 대학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4), 107-128.

조준희 (2019). 21세기 인문학교육을 위하여: 서양 각국의 디지털인문학 교육 현황 분석. 경재인문 사회연구회.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디지털인문학 특강 안내 (2021). 출처:

<http://has.hallym.ac.kr/?c=7/31&uid=1911>

한미경, 장윤금 (2017). 개신교 교육 선교사들의 편지(1885-1942). 인문과학, 111. 33-60.

한상형 (2020.02.26). 성균관대학교, 2021 유학대학 온라인 비교과 프로그램 ‘인문학을 위한 융합교육’ 성료

<http://www.lectur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61>

Burd, C. (2020). Close Reading and Coding with the Seward Family Digital Archive: Digital Documentary Editing in the Undergraduate History Classroom. In Young, Christopher ed. Quick Hits for Teaching with Digital Humanit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DH101-Fall 2018: 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 (2018).

Available: <https://asandergarcia.humanspace.ucla.edu/courses/dh101f18/>

Digital Humanities Summer Institute: A Place for Open Digital Scholarship (2021).

Available: <http://www.dhsi.org>

Flanders, J., Bauman S., Clark, A., Doyle, B.L., Hamlin, S., Quinn, W. (2020). TEI Pedagogy and TAPAS Classroom. Journal of the Text Encoding Initiative.

<https://doi.org/10.4000/jtei.2144>

Hacking the Humanities Tutorials (2018. 9. 5). Available: <https://youtu.be/fhsH4ua9zP8>

K Town Bites: A Look into the Development of Koreatown Restaurants (2018).

Available: <https://bruinbusinessburea.wixsite.com/ktownbytes>

Lee, J. & Lee, H. (2019). Digital Humanities and New directions in South Korea. Digital

Scholarship in the Humanities, 34(4), 772-790. <http://doi.org/10.1093/llc/fqy081>

Marquette University, Digital Scholarship and Programs, Services. (2021). Available:

<https://www.marquette.edu/library/digital-scholarship/services/consultations.php>

Matelski, E. (2020). “Social Network Analysis: Visualizing the Salem Witch Trials”. In Young, Christopher ed. Quick Hits for Teaching with Digital Humanit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urray, G. (2021, October 12). Interview by author [via Email]
- Oxygen XML Editor (2021). Available: www.oxygenxml.com
- Posner, M. (2013). No Half Measures: Overcoming Common Challenges to Doing Digital Humanities in the Library.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53(1), 43-52.
- Princeton Seminary Student DH Projects (2015). Available: <http://exhibits.ptsem.edu/dhprojects2015/>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cademic Info. (2015). Available: <https://www.ptsem.edu/academics/departments/religion-and-society/academic-info>
- Reynolds, W. (1897). Diary of Chulla-Do Trip, March 27-May 13, 1894. Available: <https://archive.org/details/missionariesreyn4520unse/page/n23/mode/2up?view=theater>
- 이혜정역. (2008) 호남탐사기. 호남교회춘추, 11(30) 59-68.
- Salem Witch Trials Documentary Archives (2018). Available: <http://salem.lib.virginia.edu/home.html>
- Tapas Project (2016). Available: <http://www.tapasproject.org>
- Universiteit Leiden, Events (2021). Available: <https://www.universiteitleiden.nl/en/events/2021/01/teach-the-teachers-workshop-in-digital-skills>
- Universiteit Leiden, Studiesgids (2021). Available: <https://studiesgids.universiteitleiden.nl/courses/101992/hacking-the-humanities-an-introduction-to-digital-humanities-and-text-mining>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는 디지털인문학이 더욱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디지털인문학 교육도 더 효율적이 되어야 함을 전제로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업의 모델을 고안하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인문학 교육 관련하여 현재 세계 각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 사례들을 총체적으로 개관하였고, 이어서 정규 교육으로 개설되었던 수업 중 여섯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그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로 정부의 지원으로 수행되고 있는 <내한 선교사 편지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디지털인문학을 교회사의 새로운 수업 방법론으로 적용해 보기 위하여 개설되었던 <선교사 편지 DB를 통한 재한선교사 연구>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은 기존의 디지털인문학 수업의 강점을 분석하여 본 수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창의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들이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료적 가치가 충분한 내한 선교사 편지라는 1차 자료를 한국 교회사의 맥락에서 면밀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디지털인문학의 기법을 교회사 연구에 접목하는 실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인문학을 연구해 온 다수의 대학원생들은 디지털 기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수업을 고안했다. 특히, 기술적인 영역은 따로 제작한 영상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수업을 마칠 무렵에 학생들은 몇 가지 디지털 툴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기말 과제는 출판을 전제로 고안되었으며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완성한 과제물은 웹 사이트(www.kmhhistory.com)를 통해 공유되었다. 그리고 수업의 중간 과제물이었던 선교사 편지의 전자 편찬은 XML-TEI 파일을 만들어 미국 디지털인문학 사이트인 TAPAS Project를 통해 출판했다. 웹 사이트의 구축의 경우 참여 학생들이 특정한 선교사에 대하여 연구한 뒤에 결과물을 워드프레스에 입력했고 매핑과 타임라인을 동료들과 협업하여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향후 발전 방향은 융합적인 학문의 특장상 디지털인문학센터를 구축하는 것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Abstract]

Teaching Digital Humanities: A Case Study of a Korean Church History Course

Han, Mikyung Kim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multiple cases of programs and courses related to digital humanities education offered in recent years in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in Korea and abroad. Six digital humanities cours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determine thei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eaching plans. This paper also introduces 'Korean Church History in Missionaries Letters,' a digital humanities course offered in Spring 2021 at Yonsei University's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which was designed based on the analyses carried out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The course allowed students to experiment with the primary sources of the early missionaries in Korea and familiarize themselves with various digital tools. Through the course, the students had the opportunity to complete a final project as a team-namely, building a website on the works of American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in Korea. In addition, the students worked individually to create XML-TEI files, then uploaded them to the TAPAS Project website. Finally, the paper suggests the need for digital humanities centers, which can play a major role as a hub for digital humanities education on campus.

[Keywords] Digital Humanities Education; Protestant Missionaries in Korea: Primary Sources on Korean Christianity History; Letters; Southern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15일 /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6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3일

[저자연락처] esthermhan@gmail.com